

두산아트랩 공연 2024 ③

원의 안과 밖

산호초를 그린 자국

연극·신체극

125(목)~127(토) 목금 8시 토 3시

쇼케이스 60분

*아티스트 토크 125(목), 127(토)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티켓게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dbang.com/dh/7508

관객에게

<산호초를 그린 자국> 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관객분들! 극장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공연을 만든 원지영입니다. 1년 전쯤 어떤 공연을 하고 싶는지 묻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막연하게 '글쎄, 아주 이상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핑크빛 로맨스는 아니지만 이성애나, 동성애, 모성애, 부성애, 동물, 식물에 대한 사랑과는 다를 바 없는 여러 가지 분별없는 사랑에 대한 모양을 그려본다면 어떨까. 하얀 두루마리가 펼쳐진 극장에서 두 명의 퍼포머가 만나 오직 몸과 서커스의 기술로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비언어적인 순간에 대해 공연예술이 해낼 수 있는 마법을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이 쇼케이스가 무대에서 공연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지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그러므로 오늘 관객들이 만나게 될 시간은 기약 없는 정식 공연으로 향하기 전 장면들에 대한 스케치를 나누고, 잠시 상상의 뚜껑을 열어보는 자리입니다.



<할머니가 남기고 간 반진고리에서>

바늘이 꽃힌 반진고리의 심장

내게 가장 큰 사랑을 주었던 이가 남기고 간 유품을 떠올려 보았을 때 생각나는 건 나를 키운 할머니의 반진고리였습니다. 내 구멍 난 양말이나 피아노 덮개 같은 것을 손수 메우거나 만들던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를 다시 열고 낭만적인 추억에 잠기기도 전에 아주 묘한 물체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위의 사진 속 하트 모양 쿠션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삶에 가장 길고 많은 사랑을 준 이가 남기고 간 이 물건은 생각보다 너무 아파 보이잖아? 붉은 심장에 꽃힌 수많은 바늘들이라니. 하트는 폭신하고, 반진고리는 아늑해 보였는데 어쩐지 서늘하고 서글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창작에 있어 굉장히 묘한 영감을 주는 이미지였고,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포근한 줄 알았지만 날카롭게 찌르는, 사랑하기 위해 상호 간에 불가피한 상처가 필요한 순간들에 대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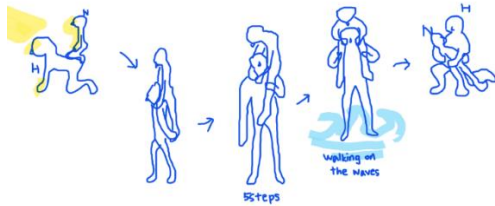
두산아트랩은 관객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온라인 관객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창작자에게 전달되어
작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관객 설문 바로가기](#)

기에

사랑의 다양성을 그려내기 위해선 조금 다른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몸. 사랑의 몸짓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독특함과 괴이함을 그려 내고 싶어 이번 공연에서 선택한 언어는 기예적 몸입니다. 기예적 몸을 통해 일상에서 상상치 못한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그려내고, 우리가 삶에서 가닿지 못한 세계까지 데려가 보려고 합니다. 마치 사랑이 그러듯이.



<조연출 조이가 그린 그림> ©김조이혜수

배우

김준봉과 김하람은 이번 두산아트랩 실험 공연의 주인공입니다.

김준봉은 공중극예(에어리얼)를 전문으로 하는 서커스 아티스트이고, 김하람은 연극 무대에서 주로 활동해 온 배우입니다. 이번 공연은 두 사람의 몸을 빌려 사랑의 모양들을 표현합니다.

미술, 그리고 산호초의 조각들

미술은 매우 온 좋게 다채로운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예원 작가는 무대미술뿐만 아니라 공연의 전체적인 컬러와 옷 그리고 크고 작은 소품들을 손수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는 조형예술 콜렉티브인 '나잇노이즈'와 박수지, 김심정 작가의 산호초 조각들을 더했습니다.

박수지 작가와 김심정 작가의 산호초 작품이 단순히 오브제로 남지 않고 배우들의 몸과 상호작용하도록 시도했습니다.

(여담으로 박수지 작가는 저의 초등학교 동창인데 15년 만에 이 작업을 통해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원 디자이너의 구상> ©이예원

특수효과

저는 종종 미술사와 함께하는 공연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이번 두산아트랩 실험에서는 아주 작은 오브제의 미술적 효과를 구현해 내기 위해 임재현 미술사를 섭외하여

작업했습니다.

미술의 재료들은 바늘과 실, 날아가는 편지, 먼지들, 동그란 연기 등인데...아무래도 아직 실험 단계인 미술이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무대에서 해보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성공 기원.

조명

빛은 이번 단계에서 저 역시도 아직 완벽하게 상상하지 못한 영역이지만 신동선 디자이너가 느낀 작품의 감상을 바탕으로 어떤 장면은 공간적 표현으로, 어떤 장면은 느껴진 감정대로, 해변과 섬과 일상과 심해를 오가는 느낌이 들도록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온도와 질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소리와 곡

공연의 음악들은 제가 <산호초를 그린 자국>을 떠올리며 차곡차곡 모아온 곡들입니다. 공연에 음악을 배치하고 보니 사랑의 명암과 삶의 흐름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감독님이 압혀 주신 사운드와 함께 어우러진 음악이 극장의 여덟 개의 스피커를 채울 예정입니다. 나중에 정식 공연에서는 작곡이 이루어지기를, 또 배우의 몸과 어우러진 악기 연주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크로바틱

마히나와 김조이혜수가 아크로바틱의 기술과 안전을 살피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기존의 기예 동작의 기술들을 익히면서도 그것에 벗어난 변형된 감각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작업 과정은 아침에 배우들이 몸을 풀고 기술 연습을 하면, 그것을 연출자가 장면으로 발체하여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즉, 이번 작품은 몸으로 쓰는 연극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고민들

휴. 역시 몸의 언어를 찾는다는 것은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고민을 동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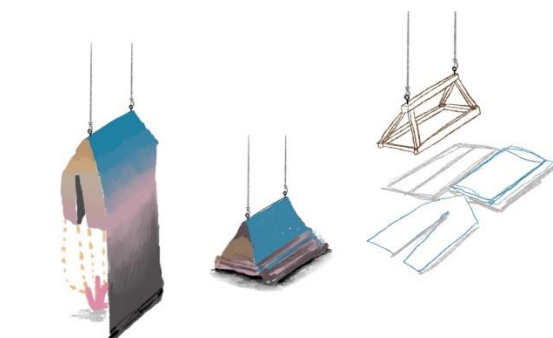
- 과연 몸의 기술적 난이도를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과 공연이 표현하고자 하는 본질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 사랑이 그린 그림자와 그 이면을 말없이 무대 위에 그려내고, 소리 없는 공동의 위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 다음 공연이 있을 것인가.

영상 출처

- 영화 <Sound of Music>
(감독: Robert Wise, 제작: 20th Century Fox)
*위의 영상을 사용하여 재해석하였습니다.



<이예원 디자이너의 구상> ©이예원

원의 안과 밖

'원의 안과 밖'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안과 밖, 그리고 극장과 공연예술 영토 바깥의 먼 곳을 오고 가며 공연을 만듭니다. 원지영의 지속적인 연극 프로젝트의 이름이자 작업을 관통하는 테마입니다.

CONTACT

원의 안과 밖
ONEJOYOOL@GMAIL.COM

연극신체극 <산호초를 그린 자국>

- 기획 두산아트센터
- 작연출 원지영
- 출연 김준봉 김하람
- 제작 원의 안과 밖
- 조연출기예자문 김조이혜수
- 아크로바틱 코치디자이너 마히나
- 무대미술의상소품 이예원
- 조형미술 나잇노이즈(박수지 김심정)
- 특수효과 임재현
- 조명 신동선
- 음향 이재
- 영상기술 장주희
- 무대감독 김영주
- 영상기록 권순현
- 사진기록 안희주
- 조명 오퍼레이터 김혜수
- 음향영상 오퍼레이터 이재
- 무대크루 김윤지
- 조명크루 곽태준 김서라 정우원 정하영 홍주희
- 음향크루 강지수
- 영상크루 이현석

[두산아트랩 공연 2025 공모 안내]

일정 2024.6.10~7.10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